

태풍 피해 예방·대응 만전

전주시, 대책본부 가동·시설물 일제점검·피해 신고·응급 복구체계 등 구축

전주시가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조치를 진행하고 공원·녹지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는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155명으로 대책본부를 꾸려 관심·주의·경계 및 심각 단계 등 상황별로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동 주민센터 재난 업무 담당자와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피해 신고 및 응급 복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또 산사태 예방 대응·복구팀을 운영해 취약지역 106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배수로 정비, 천막·비닐 피복 작업, 출입금지 안전띠 설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거동 불안정 등 취약계층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비상연락체계를 주민대피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249개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도 철저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예찰 활동을 통해 운



전주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조치를 진행하고 공원·녹지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 등에 나선다.

동·편의시설 및 정자, 안내판 등 시설물과 침수 위험지역을 일제점검하고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응급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2년 이내 식재한 수목의 지주목을 결속하고 고사목과 고사가지, 쓰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 등을 오는 15일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태풍은 언제 올지 예측할 수가 없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보행자용 도로명판 180개 추가 설치

전주시, 쉽고 빠르게 현재 위치 파악 정확할 길 찾기 가능해질 것

전주시가 도로로 걷는 시민들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한다.

전주시는 총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해 다음 달 30일까지 이면도로와 골목길, 교차로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180개를 추가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행자용 도로명판에는 보행 진행방향과 한글 도로명, 로마자 도로명, 기초(건물) 번호 등이 표기돼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올 상반기에도 940개

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등 그동안 총 1만3056개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했다.

배회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보행자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길 찾기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고전에게 길을 묻다' 강연 운영

18일~10월 13일까지 총 4회 전주시립도서관 꽃심·한벽문화관 공연장서

함께 고전을 읽으며 소통 비결을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강연이 마련된다.

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 '고전에게 길을 묻다' 강연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00권의 고전을 5년 동안 함께 읽는 독서운동인 '고전 100권 함께 읽기'와 연계해 추진되는 것

으로, 시민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고 지혜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오는 18일에는 진성수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초청돼 '동양고전에서 찾은 소통의 비결'을 주제로 강연의 포문을 연다. 이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논어와 주역, 명심보감 등 동양고전의 문장을 직접 읽어보면서 선현들의 지혜를 배우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어 다음 달 3일에는 박재영 전북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와 함께 하는 독서토론이 진행된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사라미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시는 또 10월 9일에는 고미숙 고전평론가를, 같은 달 13일에는 김경집 인문학자를 각각 초청해 강연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덕진도서관 책임은도시팀(063-281-6511)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형 전환교육' 인식 확산·활성화 나선다

전주시 야호학교, 25일까지 시민공감교실 참여자 30명 선착순 모집

전주시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주형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에 나선다. 전주형 전환교육은 청소년들이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볼 수 있는 교육이다.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오는 25일까지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공감교실' 참여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전환의 시대,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실은 전주형 전환교육의 철학과 핵심에 대해 알아보고 민주적인 대화법을 통한 부모와 자녀 간 관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6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강연내용은 ▲청소년과 민주적인 관계 만들기 ▲기정과 지역에서 심리적 안전지대 만들기 ▲전주형 전환교육 실천사례 공유하기 등이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http://naver.me/xUSW1U3)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교육청 소년과(063-281-6583)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도시와 마을, 학교와 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전주형 전환교육에 대한 기본개념 인식을 확산해 전환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자연생태관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11일 자연생태 해설사와 환경 분야 활동가 등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탄소중립 실현'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교육

전주자연생태관·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전주를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민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주자연생태관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11일 자연생태 해설사와 환경 분야 활동가 등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가 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일상 속 친환경적인 실천 방안을 정착해 나가고자 마련된 것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첫 강연에는 전북발전연구원 장남정 박사가 초청돼 ▲기후변화의 이

해 ▲정부 정책동향 및 전라북도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민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주자연생태관은 오는 18일과 25일, 다음 달 1일과 7일에도 ▲기후변화 사라질 곤충들 ▲기후변화에 따른 주변 생물이야기 ▲기후변화와 생태계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의 실천과제(업사이클링, 제로웨이스트 등)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교육은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운영되며, 희망자는 전주자연생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전주자연생태관은 생활 속 탄소저감 실천을 위한 시민교육도 10월부터 월 1회에 걸쳐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고은경 예코그린환경연구소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행동, 탄소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물, 자원의 재활용과 새활용 등 주제별 강연이 이어진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주자연생태관이 환경생태 체험 및 교육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